

황선홍호, 日·中·UAE와 한 조

〈한국 축구 U-23 국가대표팀〉

내년 4월 U-23 AFC 아시안컵 겸 파리올림픽 최종 예선
예선 통과 시 세계 최초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

세계 최초로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가 2024 23세 이하(U-23) 아시안컵 겸 2024 파리올림픽 최종예선에서 일본, 중국, 아랍에미리트(UAE)와 한 조에서 경쟁한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3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대회 조 추첨식에서 일본, 중국, UAE와 B조에 편성됐다.

포트에 배정된 한국은 톱시드 배정을 받은 일본이 속한 조에 속하며 수

명의 라이벌전을 펼치게 됐다.

한국은 지난해 이 대회 8강전에서 일본에 0-3으로 패한 아픈 경험이 있다.

이 연령대 상대전적에선 한국이 7승4무6패로 근소하게 앞선다. 가장 최근 대결은 지난달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으로 한국이 2-1로 승리했다.

중국을 상대로는 12승3무2패로 크게 앞서고, 중동의 이점을 안고 뿔 UAE에도 7승1무2패로 우위다.

이번 대회는 내년 파리올림픽 최종예선을 겸하는 대회로 상위 3개국에 올림픽 출전권이 주어진다. 4위는 아프리카축구연맹(CAF) 소속팀과 플레이오프를 치러 본선행을 노릴 수 있다.

한국이 최종예선을 통과하면 세계 최초로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성공하게 된다.

대회는 내년 4월15일부터 5월3일까지 카타르에서 열린다. 총 16개국이 참가해 4개국씩 네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르고, 각 조 상위 2개국이 8강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방식이다.

황선홍호는 최근 프랑스에서 전지훈련과 평가전을 치르며 본격적인 올림픽 모드에 돌입했다.

앞서 황 감독은 "당연한 승리나 결과는 없다.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 선수들과 함께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에 나가는 건 큰일"이라며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본선에 가더라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국의 역대 최고 성적은 김학범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던 2020년 대회의 우승이다.

한편,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는 A조에서 개최국 카타르를 비롯해 호주, 요르단과 경쟁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태국, 타지키스탄은 C조에서,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쿠웨이트, 말레이시아는 D조에서 조별리그를 펼친다. /뉴시스



장수군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체육대회 승마경기 등 총 11회의 승마대회를 개최하며 명실상부 승마 관광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구축하고 있다. 사진은 대회에 참가한 선수가 승마용 말을 타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있는 모습이다.

스포츠산업 창업기업 우수 사례 공유

전북대, 'WE-SPORTS 성과교류회' ... 대구테크노파크와 공동 주관
전시회 · 지원기업 소개 · 투자유치 위한 참여기업 발표 등 진행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권대규)은 23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WE-SPORTS 창업기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의 운영기관인 전북대 창업지원단(예비초기창업지원센터)과 대구테크노파크 혁신디바이스센터(창업도약센터)가 함께 주관한 첫 연합행사다.

이날 서울·경기, 인천, 대구, 부산, 울산, 경상, 전라 등 각 지역에 소재한 30개의 창업기업과 운영기관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여해 기업 간 우수 사업성과 홍보를 위한 전시회와 지원기업 소개, 그리고 이 미지 메이킹 특강, 투자유치를 위한 참여기업의 발표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주)뽀드가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해 지난해 대비 40%의 고용인원을 증원했고, 5억 원의 투자 유치를 달성한 성과가 대표 우수 사례로 소개됐다.

이 사업과 관련해 전북대 창업지원단은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의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이 23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WE-SPORTS 창업기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한 가운데, 권대규 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기본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창업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오는 12월 지원기업 최종 평가를 진행해 성과를 점검한 후 후속 지원까지 연계할 예정이다.

권대규 단장은 "내·외부 요인으로 인해 성과 도출이 어려운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성과를 내준 기업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며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운영기관들과 함께 창업기업들의 사업화 성공을 증대와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전국 유소년 축구 정음서 '킥 오프'

내장산배 대회 오늘 개막

'2023년 정음 내장산배 유소년 축구대회'가 24일 정음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

한국축구를 법연맹이 주최하고 정음시축구협회가 주관해 열리는 이번 대회는 1차 대회 오는 24일부터 28일, 2차 대회 12월 8일부터 10일까지의 일정으로 정음체육공원 축구장과 태인성황축구장에서 열린다.

국내 유소년 축구 최정상팀을 가리는 이번 대회에는 1, 2차대회 합산 총 103개팀 11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짜릿하고 시원한 명승부를 펼치게 된다.

경기는 학년별(2~6학년) 5개 그룹으로 진행되며 정음시에서는 정음ATFC, 정음UTD 등 8개팀이 참가한다.

특히 대회 외에도 방문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음 시티투어, 시립미술관 특별 기획 전시 등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까지 마련됐다.

이학수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관광비수기인 동절기에 열리는 이번 대회가 정음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음=김대환기자



장수군, 올 한해 전국승마대회 열 한번 개최

승마 관광도시 입지 '확고'

10여억원 경제 효과... 오늘까지 생활체육 승마대회 열여

장수군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체육대회 승마경기 등 총 11회의 승마대회를 개최하며 명실상부 승마 관광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구축하고 있다.

23일 이에 따르면, 장수군은 말산업특구지역으로서 승마대회를 유치 및 개최하며 장수군의 위상을 알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전국에서 연간 30~40여 회 승마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올해에만 장수군에서 11회의 승마대회를 진행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장수'라는 지역 브랜드 홍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최근 군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 한해 군에서 개최된 승마대회를 찾은 방문 인원은 9,400여명이며,

10여억원의 경제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앞으로도 각종 승마대회 유치를 지속해 장수 승마산업 발전을 위해 힘을 계획하며, 나아가 국내 숙박업소 및 연계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방문객들의 체류기간을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누구나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말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승마대회 개최는 물론 승마체험, 관광 등 다양한 승마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전국 최고의 승마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4일까지 장수군 천천면 장수 국제승마장에서 제2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생활체육 전국 승마대회를 개최한다. /장수=고광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